

농약공해 탓하기전 안전하고

—자연식품중에도 인체에 해로운 독성

見里朝正박사 세미나서 밝혀

日本에서는 농약공해에 대한 국민의 과민한 의식을 선도하기 위한 세미나를 지난해 10.16 仙台市에서 日本理化學研究所 주최로 개최한바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 見里朝正박사(日本理化學研究所 주임연구원)는 「농약과 식품의 안전성」에 관해 『농약공해를 부르짖기 전에 농약을 안전하게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하는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식품의 안전성은 질(質)과 양(量) 및 조사방법(調査方法)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무농약채배를 외치는 소비자운동보다는 오히려 농약을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안전사용운동 등을 전개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다음내용은 日本農業技術新聞('83. 12. 5)에 게재된 見里朝正박사의 강연내용을 농약연구소 농약화학과에서 번역 제공한것이다.

<자료제공=농약연구소>

농약은 농산물생산에 없어서는 안되는 존재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식품의 안전성과 농약에 의한 환경오염등의 영향을 앞세워 농약에 대한 거부반응이 강하게 일고 있다.

이와 같은 소비자운동의 목적은 안전하고 품질좋은 식품을 값싸고 풍성하게 소비자에게 공급하는데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농약을 사용하지않고 작

올바른 사용이 더욱 중요하다.

물질 함유여부 검토 안된것이 대부분

물을 재배하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가?

첫째로 안전성이라는 면에서 볼때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재배하여 생산된 벌레먹은 채소가 농약공해가 없어 사람이나 가축에 안전하다고 하는 보장은 없다.

왜냐하면 벌레는 독물질을 분비하고 전염병을 옮기기 때문이다.

사람이 벌레에 물리거나 찢리게 되면 피부가 따갑거나 부어오르는 경우가 흔히 있다.

이것은 벌레가 독물질을 내뿜기 때문이다.

집에 많은 파리나 바퀴벌레들은 무서운 전염병을 옮기는 벌레들이며 이와 유사한 벌레는 무수히 많다.

농작물에 병해를 일으키는 곰팡이 중에는 마이코톡신(Mycotoxine)을 분비하는 것이 있는데 이 마이코톡신의 일종인 아후라톡신(Aflatoxine)은 강력한 발암물질(發癌物質)로 알려져 있다.

또한 농작물이 병원균에 침해를

당하면 식물체내에서는 파이토알렉신(Phytoalexine)이라고 하는 저항성물질이 생성되어 병원균의 침입을 막게 되는데 이 파이토알렉신중에는 독성이 강한것들이 많다고하는 것이 최근의 연구 결과 판명되었다.

자연식품은 농약공해의 염려가 없어 인기가 있다.

그러나 고사리류의 식물중에는 발암 물질을 함유한것도 있다. 「터어키」의 한 지방에서는 방광암(膀胱癌)을 일으켜 죽는 가축이 많았는데 그 원인을 조사한 결과 사료중에 들어있는 고사리종류의 식물이 주원인이라고 하는것이 밝혀진바 있다.

우리가 좋아하는 자연 식품중에는 인체에 해로운 독성물질의 함유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인것으로 알고 있다.

병해충및 잡초방제를 위해서 쓰여지고 있는 농약은 보급에 앞서 반드시 만성독성, 발암성및 최기성(催奇性)과 각종 독성작용에 대한 엄격

한 안전성시험을 실시하고 이에 합격하지 않는한 농약으로서 시판될수 없도록 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또한 식품중에 사람이 매일 섭취해도 전혀 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농약별 안전섭취량을 바탕으로 각종 농산물중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따라서 농작물중의 농약잔류량이 이 잔류허용기준을 넘지 않도록 농약을 올바르게 사용해서 병해충의 침해를 받지않고 생산된 좋은 품질의 채소를 먹는 것이 농약을 쓰지않아 벌레가 먹었거나 병에 걸린 채소를 먹는것보다 안전성이 높다고 하는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둘째로 미질(米質)이 좋아 인기(人氣)가 있는 니혼바베(日本晴) 같은 벼 품종은 병해충에 대해 약하기 때문에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는 안전생산이 어려운 실정이다.

끝으로 값싸고 중성한 식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한다고 하면서 무농약 채소를 계약재배하는 사람이 많은데 오히려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채소는 농약을 알맞게 사용해서 재배한 것에 비하여 수량이 낮고 재배시 비배관리에 노력이 많이 들기때

문에 가격이 매우 비싸지게 된다.

이상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불배 무농약채소, 다시 말해서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농산물의 생산은 안전하고 품질이 좋은 식품을 값싸게 소비자에게 공급하겠다는 소비자운동의 근본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릴수 있다.

식품의 안전성은 질(質)과 양(量) 및 조사방법(調査方法)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것이므로 무농약재배를 의치는 소비자운동보다는 오히려 농약을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안전사용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바람직한것이라고 생각한다.

